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4월호)



2025년 한인 연합감리교회 강좌, 성황리에 마치고
The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출범하다



(사진: 토요일, 평신도 대상 공개 강좌 단체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경식 부총장, 강남순 교수, 김남중 교수)

한인 연합감리교 대상 공개강좌가 새로 이전한 CST 캠퍼스에서 Brite Divinity School의 강남순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마음과 이성, 신앙과 성장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4월 5-6일 개최되었다. 5일은 평신도 대상 강좌로써 오전 2시간과 오후 2시간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6일은 목회자를 위한 강연이 2시간 진행되었다. 이경식 부총장은 인사말에서 “CST에 온 지 21년이 되었는데 최초로 한인 대상 공개강좌를 열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이러한 공개강좌를 매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총 120여 명이 등록하여 첫날은 80여 명의 평신도가 참석하였고, 둘째 날은 4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하였다.



(사진: 강남순 교수의 강의 모습)

강남순 교수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21세기,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는 어떠한 리더인가? 예수 리더십의 7가지 원리와 철학”의 제목으로 강연하였으며,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나-이웃-원수-신에 대한 사랑은 분리 불가하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든 신을 알지 못한다는 도전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목회자 대상 강연은 리더십에 초점을 두었다.

강남순 교수는 전통적인 리더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독교 공동체와 변혁적 리더십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 리더십에 대하여 피력하였는데, 예수의 리더십의 다음 다섯 가지 특성을 강조하였다: 1) 급진적 휴머니즘, 2) 생명 우선의 반율법주의, 3) 두 세계가 아닌 단일 세계, 4) 다중적 시선, 그리고 5) ‘모든 인간’의 행복과 안녕 추구.

이번 공개강좌에 참석한 많은 참가자는 교단의 분리로 인해 성서적 이해에 대해 혼돈이 있었고 올바른 신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목말라 있었다고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주제의 공개 강연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사진: 이병준 회장과 이복형 여사)



(사진: 이경식 부총장, 박성숙 사모께 감사패 증정)

이 행사를 위해 일곱 교회 및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와 서부지역연회가 후원을 하였다. 개인적으로 SeAH Steel America, Inc.의 이병준 회장이 또한 후원을 하였다. 이병준 회장은 2024년 CST를 위하여 영구장학금을 설립하여 감사패를 받았다. 그 외 감사패를 받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박성숙 사모, 한상훈 회장, 이한솔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및 이진우 회장.

이번 행사를 계획하며 한인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은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책으로The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이사장: 이창민 목사, 부이사장: 이영성 목사, 총무: 이상영 목사, 서기: 전재홍 목사, 이사: 안정섭 목사와 김남중 목사, 사무총장: 이경식 목사).



(사진: 목회자 단체 사진)



(사진: 식사하는 LA북음연합감리교회 교인들, 김웅민 목사님과 함께)



(사진: 드림교회 교인들)



(사진: 식사하는 LA연합감리교회 교인들)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한인학생회
졸업 & 학기 종강 예배/파티**

날짜 : 2025.5.19 (월)

장소 : 632 S. Grand Ave. Pasadena, CA

문의 : 송영한 전도사(한인학생회 회장)

yeonghan.song@cst.edu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Graduation Ceremony

May 20, 2025

Tuesday | 3:00 PM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부르심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다시 시작된 여정



<사진: 강케빈 목사, M.Div. 재학중>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CST)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 (M.Div.) 학생이며, 연합감리교회(UMC) 목사 안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 중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일반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면서 한인 이민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신학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학문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로 몇 차례 CST에 입학했다 자퇴하는 과정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Zoom 수업을 들으면서, 우연히 같은 수업을 듣는 장한나 전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장한나 전도사와 교제를 시작했고, 9개월 만에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한나 전도사와 교제하면서 저는 목회에서 물러나 그녀의 “사모님” 또는 “사부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 전도사의 사역에서 의미와 영감을 발견했고, 장 전도사를 응원하는 것이 기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도 다시 목회로 부르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초, 저는 장 전도사의 수업에 간식을 들고 방문했는데, 하기야(Hagiya) 교수님은 저와 단 1분 정도의 대화를 나누신 후,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며 고령화된 교회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에 함께하자며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저는 Tujunga UMC의 회복을 돕기 위해 파트타임 목회자로 파송되었습니다.

비록 소수의 80~90세 어르신들만 계신 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저는 다시 말씀 선포에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큰 소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담당 감리사에게 연락해 풀타임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마침 Crescenta Valley UMC가 목회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두 교회를 맡아 하나의 공동체로 합병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풀타임 목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과 사역은 더욱 더 흥미로운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령화된 교회를 이끄는 방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와 함께했던 사역과 기업 세계에서 배운 것들을 교회에 접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Tujunga UMC의 푸드 팬트리(food pantry) 운영 및 확장, TUMC 와 CVUMC의 부지를 활용한 저소득자 아파트(affordable housing) 개발, 그리고 LA 카운티의 노숙자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류 미비 이민자 보호 방법 모색 등을 통하여 목회를 좀 더 넓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CVUMC에는 한인 교회가 속해 있어 함께 협력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고 근처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에 영어 목회자가 부재 중이어서 매 주일 오후 그 예배에서 설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ST에 입학하는 국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CST에 입학하자마자 UMC와 관계를 맺으세요. 둘째, “찐 공동체,” 여러분의 “Chosen Family”를 찾으세요. 교회, 친구 그룹, 운동 동아리 등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이 진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국제 학생으로서의 삶은 때때로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는 여러분의 유학 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넷째,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이는 단순히 목회 소명뿐만 아니라, 신학적·정치적 관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으세요. 앞으로 CST에 입학할 분들과 만나고 교제할 생각에 벌써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교회에서 시작된 다세대, 다문화 사역 이야기



<사진: 한어진 목사, M.Div '20>

저는 2020년 M.Div. 과정을 졸업하고 KMC에서 안수를 받아 현재 만나교회에서 파트 타임으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 고된 현실 속에서도 매 순간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만나 교회에서는 청소년과 청년 영어 사역에 집중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세 아이들이 1세 한인 교회에서 겪는 문화적, 언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AG 예배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들과 연합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2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멕시코 신학교에서 대학원 강의를 할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목사님들이 목회자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한국 교회에서 영어로 목회를 하며 겪는 목회적 어려움과 신분과 경제적인 요건들로 생존을 위해 여러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 주시는 은혜와 저를 들어 쓰시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에 가 살게 하시고 또 CST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통해 다문화 사역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여러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여러 어려움과 도전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분들에게도 그리고 CST 동문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확신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진: 한어진 목사의 목회 활동 모습>

한국에서 이어가는 영성 교육과 지도자의 길



<사진: 김정희 교수, Ph.D. '22>

2022년 5월에 Spiritual formation(영성 형성)전공으로 CST 박사과정을 졸업하며 저는 신진학자발표를 시작으로 한국 학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객원교수로서 한일장신대학교와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의 시간 동안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으로 교수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남대학교 초빙교수로서 교양필수과목인 성서와 인성을 가르쳤고 지난 학기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감리교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며 저의 교수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CST와 치유 상담대학원 대학교의 협력 프로그램인 전문 상담 박사(DPC) 과정의 “내적 가족 체계(IFS)와 치유” 집중 수업을 저의 존경하는 스승님이신 Frank Rogers Jr. 교수님과 함께 한국에서 진행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수로서의 교육 외에, 저는 걷기기도, 금홀 훈련, 기독교 영성 형성 등의 주제로 다양한 교회, 학교, 단체에서 특강과 세미나의 강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성 지도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는 프레즌스 겨울 영성 수련회에 영성 지도자로서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일대일 영성 지도를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영성을 가르치면서 최근 기독교 영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영성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목회자들이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성도들의 기도에 관한 관심이 저의 기도의 여정에 관한 저술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내외 학술지에 글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며 이공 이세종 기념사업회의 이사로서 한국의 영성가를 알리는 일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현재 번역 중인 Andrew Dreitcer의 Living Compassion: Loving Like Jesus 번역을 마치고 출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한국에 금홀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기독교의 걷기기도와 관련된 유럽 현지 방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ST에서 MA와 Ph. D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사역과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CST의 동문으로서 CST를 더욱 빛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문상담 박사(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과정 입학설명회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프로그램 소개

전문상담 박사(DPC) 과정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과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HCG)가 협조 관계 아래 상담학 석사나 관련 된 학위를 소유한 상담사를 위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었으나, 언어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유 학의 어려운 관문을 넘을 수 없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몇 년의 해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 문상담 박사(DPC) 과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차 입학설명회

- 일시: 2월 5일 (수), 10:30-12:00
- 장소: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1)

중 입학설명회

- 3. 29. (토) 오전 9시
- 4. 12. (토) 오전 9시
- 4. 26. (토) 오전 9시
- 5. 10. (토) 오전 9시
- 5. 24. (토) 오전 9시

학제에 관하여

- 총 36학점 (한 과목당 4학점)
- 졸업생은 CST의 졸업장 수여

지원자격

1. 대학원에서 상담학, 상담 관련분야 등 학위 취득한 자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2. 교육부가 인정한 상담학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경력에 있는 자
3. 교육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2)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4. 입학에 위해 기초신학과목을 학부 이상에서 이수한 자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
* 신학과목 미이수자는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영상강의를 수강하면 이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설명회 참석
Zoom 링크

입학원서/등록금과 장학금/논문

1. 링크를 통해 원서 작성: <https://cst.edu/apply-now/>
(수료한 학사 이상의 학위의 공식 영문 성적표, 3명의 추천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에세이, 이력서, 전형료 \$50 (신용카드 결제 가능))
2. 등록금 (한 학점당 \$1,100)/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의 25%까지)
3. 논문은 한글로 쓸 수 있으며, 학교교육학술정보원에 영어 논문 제출을 원하는 자는 한글 완성 후,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 가능.
2명의 교수로 구성된 논문 위원들 지원, 완성 과정에 구술시험

교수진

1. 클레어몬트: 이경식 교수, Frank Rogers Jr. 교수, Yuki Schwartz 교수, Andrew Dreitcer 교수
2. 치유상담대학원대학: 김용환 교수, 유상희 교수, 정푸름 교수

문의: 김민정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생, minjung.kim@cst.edu / 010-3243-7568)

한인 영구 장학금(Korean Endowment Fund)을 소개합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과 깊은 역사적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교사 로버트 맥클레이와 그 형 찰스 맥클레이가 설립한 메클레이 신학교는 이후 CST의 뿌리가 되었으며, CST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을 배출하며 한국 감리교회와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자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젤러-정동제일교회 장학금’을 제정하였고, 매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장학금을 기부하며 미래의 신학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 정동제일교회 장학금

정동제일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로, CST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일본에 본부를 둔 선교사 로버트 맥클레이(1824-1907)는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를 가능하게 한 인물로,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으로부터 선교 활동을 위한 윤허를 받았다. 그로부터 1년 후 선교사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와 메리 플래처 벤튼 스크랜턴이 한국에 도착했다. 선교사 로버트 맥클레이의 형인 찰스 맥클레이가 메클레이 신학교를 설립했고, 일본에서의 선교 활동을 마친 후 귀국한 로버트 새뮤엘 맥클레이는 메클레이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다.

메클레이 신학교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종교학과가 되었다가, 1956년 USC가 교단에서 탈퇴를 하자, 종교학과 교수들이 클레어몬트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CST는 클레어몬트로 이전한 이후 많은 한국 유학생들을 유치하였으며, 한국 감리교 교단과도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정동제일교회는 몇 년 전 '아펜젤러-정동제일교회 장학금'을 제정하고, 매년 CST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정동제일교회 예배, 후원 감사패 전달)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5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4월 9일 기준 -

이병준 장로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이혜자 권사
박성숙 사모
황인조 장로
이진우 회장
서혜주 권사

강신욱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이종오 박사
이경식 부총장
이현재 목사
문봉장학재단(김병학 회장)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4월 8일 기준): **\$314,823**

- KEF 잔액(1990.03. - 2025.4.): \$2,391,654
- KLS 잔액(2018.10. - 2025.4.): \$718,865
- General Fund (2024.03. - 2025.4.): \$13,728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1월부터 2025년 4월 기준 -

개인 후원

이병준 회장
이상영 목사

단체 후원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월서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 성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 명단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1월부터 2025년 4월 기준): **\$12,0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부방법 안내

- * 수표: 수표는 받는 사람을 Claremont School of Theology로 쓰고 학교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장학금이 아닌 경우 메모란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이라고 명시해주세요.
- * 온라인: 온라인 기부 링크는 <http://cst.edu/give/donate/>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금선택” 아래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 항목이 있습니다.
- * 한인학생에 대한 장학금 이외에 학교를 위한 기부를 원하시면 “기금선택”에 “General Fund”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 전자 계좌 이체(EFT)를 원하시거나 증권 기증을 원하시면 slee@cst.edu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